

미국 클렘슨(Clemson) 대학에서 방문학자 1년

One Year as a Visiting Scholar in Clemson University, USA

문창호(부회장, 군산대 건축과 교수)
Moon, Changho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Kunsan National National University)

1999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UWM)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다녀온 이후, 대학에서 공대학장, 누리사업단장 등 보직을 맡아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다시 한번 해외에 나가서 조금은 쉬면서 체력도 보완하고 차분하게 헬스케어(healthcare) 건축 분야를 정리해보고 싶었다. 우리 대학의 배려로 1년의 해외연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방문할 대학을 찾아보기로 했다. 즉 대학에서 헬스케어 건축 디자인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활발할 것, 대학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있어서 번잡하지 않을 것, 대학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체류하는 한국 학생이나 교수가 많지 않을 것, 북부보다는 남부나 서부에 위치하여 기후가 따뜻할 것 등을 먼저 생각하였다.

미국 서부와 동남부에 위치한 대학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헬스케어 건축을 전공하는 교수를 찾아보았다. 몇몇 대학 교수와 교신을 하던 중 나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보다 적극성을 보인 클렘슨 대학 건축과의 데이비드(David Allison)교수를 초청교수로 결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간 한국 학생은 더러 있었지만 교수 급으로는 교류가 아직 없었다고 하였다.

이 메일을 몇 번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교수로부터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 트고 지내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격식을 깨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신을 계속하였다. 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행정적인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우리가족이 거주할 아파트 문제도 미리 상의하고 답사해주었으며, 공항에 마중을 나오겠다는 등 시골의 넉넉한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2010년 2월 17일 가족(집사람과 막둥이)과 함께 인천공항을 떠나서, 애틀랜타(Atlanta) 공항을 경유하여 클렘슨에 도착하였다. 마침 인접 대도시인 애틀랜타에 군산대 제자가 한사람 살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전에 아파트 예약하는 문제, 공항에서 우리가족 픽업 및 그의 집에서 하룻밤 체류, 자동차 예약 및 구입, 애틀랜타 한인마트 소개, 애틀랜타에서 클렘슨으로 이동 등등.



HEAL SC 학술발표장 : 데이비드 교수와 함께



클렘슨대학 대학원 A+H 스튜디오

클렘슨 아파트에 도착한 날도 데이비드 교수는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을 해주었다. 다음날 나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국제교류부에 등록, 신분증 발급, 주차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학과 사무실에 소개 등 가장 기본적인 일을 오전 동안 모두 해결해주었다. 당일 오후에는 클렘슨 대학 농구경기 티켓을 구해줘서 막둥이랑 구경을 하면서 미국 대학 문화의 일면을 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그의 가족과 함께 인근 도시에 구경도 가고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잘 지냈다.

클렘슨 대학 건축과는 4+2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원은 인증제 과정으로 일반건축과 헬스케어 건축 집중(Architecture + Health Concentration, 이하 "A+H"로 칭한다)으로 구분된다. 데이비드 교수는 A+H의 학과장으로 20년째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A+H 소속 교수는 3명으로 헬스케어 건축 전문가들이다. A+H의 교육에 대한 내용은 본 학회지 2011년 2월호에 논문으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클렘슨 대학에 체류하는 동안 데이비드 교수의 권유로 몇 개의 헬스케어 건축 디자인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3월 HEAL SC(Health Economy Advancement Legacy for South Carolina), Columbia, SC. 6월 AIA National Convention, Miami. 7월 AIA Academy of Architecture for Health/ACHA(American College of Healthcare Architects) Summer Leadership Conference and Architecture + Health Educators Summit, Chicago. 11월 2010 Healthcare Design Conference, Las Vegas.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 마다 느꼈던 점은, 행사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석하는 미국의 헬스케어 건축 전문가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고, 나이가 지긋한 실무하는 건축사무소 사장/회장 급들이 다수 참여하여 진지하게 경청/토론하고 있으며, 행사에 대한 부분적/전체적 피드백(feedback)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7월 시카고 학술대회는 헬스케어 건축 교육자 모임도 함께 열려서 인상적이었다. 덕분에 미국 여러 대학의 헬스케어 건축 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고 관련 교수들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다.

데이비드 교수의 요청으로 2010 가을학기 대학원 설계스튜디오 운영에 참여하였다. 보통은 수강인원이 5-7명인데, 그 학기에는 15명이었다. 아마도 데이비드 교수는 이렇게 많은 학생을 혼자 지도해야 하는 부담스러움이 나에게 도움을 부탁한 요인이 된 것 같다. 평소 미국 대학에서의 건축 설계교육이 궁금했는데, 여러모로 힘들긴 하였지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내내 설계실에서 학생들과 도면/모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데이비드 교수는 학과장으로서 헬스케어 건축 전공 학생들과 친구처럼 또는 마피아 두목(?) 지내면서 교육에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 담당 교수는 1주일에 3일간 오후 4시간을 설계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설계진행에 대하여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현장답사



설계 보드리뷰 장면

주제는 인근 중소도시 내에 있는 노인주거시설을 설계하는 것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설계 요구 사항은 교수가 제공한다. 첫 시간에 설계개요를 설명하고 바로 현장 답사를 나간다. 오후 내내 대지뿐만 아니라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중간에 휴식 겸해서 오래된 맥주 집에서 집맥주(house beer)를 한잔씩 즐기기도 한다. 저녁에는 취향대로 레스토랑을 선택하여 그룹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식사를 마치는 것까지가 현장답사이다. 물론 대부분 이동을 위한 차량이나 식사는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된다.

설계 이전 과정을 보면 일단 학생들을 3개 팀으로 나눈다. 각 팀은 대지 및 도시맥락 분석, 법규 분석 및 건축 프로그램 작성, 사례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한다. 설계는 개인별로 해 나가는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추가하면서 사뭇 다른 프로젝트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대시설로는 커피숍, 농민 직판장(farmers' market), 수영장, 판매시설, 의원, 주간보호시설 등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프로젝트는 한 학기에 1개를 진행하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보드리뷰(board review)는 4회 정도 이루어진다. 외부인사로는 근처(자동차로 2-4시간 거리)의 건축사무소 소장, 건축학부의 다른 스튜디오 교수, 원거리에 있어도 헬스케어 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사무소 소장 등이 초청된다. 외부인사가 지적하는 사항을 데이비드교수는 현장에서 아이패드 메모하였다가 다음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주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학생들은 보드리뷰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즐긴다. 담당교수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견 엉뚱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스튜디오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A+H의 헬스케어 건축 설계 교육은, 비록 주요대상이 보건소, 병원, 노인주거시설 등이긴 해도, 건축형태를 중요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대상별로 몇 가지 헬스케어 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는 건축형태 디자인에 상당히 치중한다. 여러 차례 골판지로 모형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건축 자체의 형태를 다양하게 검토한다. 매주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의 디자인을 보면서 나는 평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와 기능적 측면을 많이 지적해주었다. 데이비드 교수는 나의 이러한 보완적인 역할을 고마워했다.

흥미로운 점은 건축학부의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건축형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추상적인 많은 의견을 나누는 반면,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기능적인 평면구성이나 지나친 총면적/순면적 비, 구조, 배치 상에서 각종 동선 및 주차계획 등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검토해준다.

원래 나의 이번 방문학자 연구 주제는 "SeniorSmart"에 관한 것이었고, 그 지역에서 여러 대학의 여러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대형 다학제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다. 중소도시 노인들이 스마트하게 살기 위한 요소로 "Smart Wheel(자동차)", "Smart Brain(뇌질환)" 및 Smart Home(주택) 등 3가

지가 연구 세부주제로 되어있다. 연구진은 의료, 보건, 간호, 심리학, 건축, 기계 등의 학문과 산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Smart Home 분야도 책임자는 의과대학 내과교수이다. 미국 중소도시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없이는 이동성(mobility)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연구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기적인 미팅에 참석하여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연구단 운영을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헬스케어 건축 관련 대규모 컨퍼런스는 "Healthcare Design Conference"이다. 작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 데이비드 교수는 스튜디오 학생 전원(15명)을 참가시켰다. 일부 학생은 단기집중 디자인 이벤트인 "Student Design Charrette"에 참가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은 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가시킨다. 이는 데이비드 교수가 주최 측과 접촉하여 학생들이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주선한 덕분이다.



Research Lab



단위병실 Mock Up

데이비드 교수팀은 몇 년 동안 유닛 병실(1인실)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병원의 입원실은 모두 1인실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데이비드 교수는 고비용 구조의 1인실만으로 구성된 간호단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인실의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여유 대지에,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몇 개의 입원실 1인실 실물모델(mock up)을 포함한 실험실(research lab)을 꾸미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계획 분야도 이러한 훌륭한 실험실의 운영이 필요하고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2011년 2월17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귀국함으로써 꿀맛 같은 방문학자 기간은 마무리되었다. 1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조용하고 한가로운 동네에서 잘 지냈다. 덕분에 좋은 교수 친구도 한 명 깊이 사귀었고,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헬스케어 건축에 관심있는 교수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 대학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체험하였다. 미국 대학에 헬스케어 건축을 공부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당분간 가이드도 가능할 것 같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준 친구 데이비드 교수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클렘슨 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기관과 좋은 헬스케어 건축 디자인 분야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